

김진우 새 무기 슬라이더 장착 신종길 자신감 '생각대로 야구'



신종길



김진우



변화로 거듭난 '83콤비' 타이거즈 투·타의 기둥으로

변화를 통한 변화로 '83콤비'가 투·타의 기둥이 되고 있다.

5경기 내리 패배를 기록했던 KIA는 지난 14일 SK를 3-1로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그 중심에는 뒤늦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83년생 동갑내기 중고참 김진우와 신종길이 있었다.

김진우는 이날 6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무실점의 호투를 했고, 신종길은 2타점 적시타로 6경기 만에 KIA의 선취점을 만들었다.

변화를 통한 변화가 주축하던 이들을 추추게 했다.

김진우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최근 두 경기의 성적은 5이닝 3실점, 5.1이닝 3실점, 들

속날쭉한 제구로 어렵게 승부를 하면서 기대 이하의 피칭을 했다.

14일에는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9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송은범을 통해 힌트를 얻은 슬라이더가 돋보였다. '김진우 스타일'로 살짝 비틀어 잡은 뒤 직구처럼 누르고 던졌다. 히팅 포인트 앞쪽을 보고 던진 공은 예리하게 꺾이면서 SK타자들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신기 그립에도 살짝 변화를 줬다. 폭포수 커브로 유명한 김진우지만 지난 시즌에는 싱커로도 특별히 재미를 봤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싱커가 통하지 않았다. 공인구 매듭이 넓어지면서 그립을 잡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이다. 위기타파를 위해 연구 끝에 그립에 살짝 변화를 줬고 그 변화는 14일 호투

로 이어졌다.

김진우는 "내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슬라이더를 준비했다. 싱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다. 부진해서 팀에 미안했는데 완벽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하자는 생각으로 던졌다"며 "밸런스가 좋지 않아 힘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내 역할을 못하면 2군 간다는 생각으로 등판했다. 김상훈 선배 리드도 좋았고 수비들도 좋았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신종길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신종길은 "예전에는 너무 급하게 했다. 처음 한두 타석에서 부진하면 오늘 못 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마음이 급했

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안되면 내일 더 잘하는 마음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쫓기는 카운트에서도 유인구에 배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종길의 '생각대로 야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가 됐던 집중력도 달라졌다. 매 타석에서 타격코치를 괴롭히면서 승부에 대한 공부를 한다. 달라진 집중력에 벤치의 신뢰가 쌓이면서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신종길은 "좌투수와의 승부였는데도 믿고 3번 타자로 기용해주셨다. 배트 스피드가 있으니까 붙여놓고 스윙을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해주셨는데 그걸 믿고 자신있게 스윙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변화가 이끈 기술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수훈선수 인터뷰 뒤 "아따 기분좋네"

① 덕아웃 말말말

▲내가 주자를 바꿔버렸잖아=14일 5회 1사 만루에서 수비 방해로 아웃됐던 2루주자 김상훈, 주자가 바뀌면서 득점을 추가할 수 있었다. 김상훈의 아웃으로 2루주자가 된 이용규가 신종길의 좌전안타때 빠른 발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KIA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공금하지 않아요?=14일 경기 도중 기자실을 찾은 최규순 심판위원, 김상훈의 아웃 상황에 대해서 왜 문의를 하지 않느냐며, 1사 만루 김선빈의 플라이 타구 때 3루로 스타트를 끊었던 김상훈은 2루로 귀루하는 과정에서 SK 유격수 김성현과 부딪혔다. 수비수 시야가 가려지면서 공이 떨어지자 김상훈은 3루로 뛰었으나 수비 방해가 선언되면서 아웃됐다. 심판의 판정에 따라 홈을 밟았던 선형주자 박기남은 3루로 돌아왔고 1루주자 이용규와 타자주자 김선빈은 각각 2루와 1루로 진루했다.

▲아따 기분좋네=14일 수훈선수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던 김진우. 이날 김진우는 6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하며 지난 4월 19일 이후 시즌 3승에 성공했다.

▲큰 선물은 없나?=코치 대표로 선수단

으로부터 스승의 날 선물을 받은 이순철 수석코치, 주장 김상훈이 작은 선물이라면서 상품권을 건네자.

▲큰 선물로 많이 이겨드리겠습니다=이 수석코치의 농담에 선수들이 입을 모아.

▲자 류제국 선수 공략은 말이지요~=서재응이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을 향해, 한국으로 복귀한 메이저리그 출신의 LG 류제국이 19일 KIA전에 나온다고 하자 서재응이 류제국의 구공에 대해 설명하며.

▲오늘 걱정이나 하게요=서재응의 감의를 본 이용규, 류제국의 등판이 일요일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일요일에 던지려고 6이닝만 했대요=서재응이 19일 선발인 김진우를 보고 전날 6이닝만 던지더라면서 놀리며, 꼭 말말말에 써달라는 말과 함께, 선동열 감독은 19일 등판에 대비해 14일 99개의 공을 던진 김진우를 7회 마운드에 올리지 않았다.

▲히도 많이 와서=카카오톡으로 배달된 피자의 출처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프런트, 선수들이 자주 피자를 산다면, 이날 피자는 전남 슬리투수 김진우가 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초등학교에 야구용품 전달 광주시 야구협회 나훈 회장은 지난 14일 수향 초등학교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7개 야구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과 현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야구협회 제공>

류현진 애틀랜타 상대 5승 도전

18일 오전 8시 30분

'괴물투수' 류현진(26·LA다저스)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상대로 시즌 5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18일 오전 8시 30분(이하 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터너필드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한다.

류현진이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함께 팀내 다승 1위(4승)를 달리고 있으나, 애틀랜타는 성적에서 알 수 있듯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 특히 애틀랜타의 홈런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애틀랜타는 팀 타율 0.241로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11위에 머물지만 큰 스윙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장타율 0.416을 기록, 내셔널리그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에만 밀릴 뿐이다.

홈런은 52개나 쏘아 올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공동 선두를 달린다. 애틀랜타의 좌익수 저스틴 업튼

이 홈런 13개로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며 팀 홈런을 이끌고 있다.

류현진과 마운드에서 맞붙을 애틀랜타의 선발은 4승 4패에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한 왼손투수 폴 마홀이다.

한편 류현진이 미국의 어린이 야구팬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화끈한 팬서비스를 했다. 최근 경기에 앞서 의아에서 몸을 풀던 류현진이 관중석의 꼬마 팬과 캐치볼을 하는 1분13초 길이의 동영상(youtube/6qZNXRYAY-Y)이 14일(현지시간) LA 타임스에 소개됐다.

외야쪽 스탠드에 다저스 유니폼을 갖춰 입고 왼손에 야구 글러브까지 낀 꼬마 팬(약 600여원)짜리 괴물 왼손투수와 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류스는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으로 류현진과 약 5분동안 캐치볼을 이어갔다. LA 타임스는 류현진이 배팅 연습을 마치고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면서 캐치볼하던 공을 류스에게 선물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야구장의 '스승의 날' KIA 선수들이 15일 훈련에 앞서 이순철 수석코치(왼쪽)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